

2016. 6. 3.(금)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국민일보

2016년 06월 03일 (금)
14면 사회

국내외 생태계 전문가 30여명 경기 서부 DMZ 탐방

“아픔의 땅, 생태계 가치 더 소중”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DMZ에 직접 와보니 이곳이 품은 생태계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경기도가 2일 오전 7시부터 파주 DMZ 일원에서 가진 ‘경기도 서부 DMZ 현장탐방’에 참가한 독일 연방자연보전청 우베리켄 박사 등 국내외 생태계 전문가 30여명은 연신 탄성을 터뜨렸다.

이번 현장탐방은 지난 1일 열린 ‘경기도 DMZ 워크숍’과 연계해 국내외 생태계 전문가들에게 경기도의 DMZ 생태계 활용 사례를 직접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출발, 삼국시대에 축조된 도 기념물 제218호인 덕진산성을 찾아 DMZ일원의 역사와 생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1978년 발견된 북한의 남침용 제3땅굴과 북한의 개성시와 송악산을 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를 방문해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독수리 월동지인 장단반도 일대와 민통선 내 마을인 통일촌, 최근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습지로 인해 국내외 학계로부터 조명을 받고 있는 한강하구 등도 둘러봤다.

우베리켄 박사는 “DMZ 일원은 한국의 분단 역사와 생태계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독특한 곳으로 독일은 과거 동서독 경계 지역을 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로 지정해 자연 그대로를 보전하고 있다”며 “통일을 꿈꾸는 한국 역시 이를 참고한다면 소중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11.8 X 11.9 cm

국민일보

2016년 06월 03일 (금)
14면 사회



덕진산성 둘러보는 생태 전문가들

국내외 생태 전문가들이 2일 경기도 기념물 제218호인 덕진산성을 찾아 DMZ 일원의 역사와 생태 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11.8 X 9.4 cm

DMZ 대성동 마을기록전시관 오늘 개관

민·관 마을재생 프로젝트 첫 성과

행정자치부는 3일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마을인 파주시 대성동 마을에서 '대성동 마을기록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성동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마을주민들이 주도하고 전문가와 민간기업·정부 등 11개 기관이 힘을 모아 노후주택 보수, 마을재생 사업을 실시하는 민관협치의 방식으로 추진됐다.

마을기록전시관은 기획단계에서 정전협정 후 조성된 대성동 마을의 역사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전시할 필요성이 제기돼 주민들이 노후화된 공회당 건물을 활용해 마을을 소개하고 상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민간

기업, 공공기관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협력해 '대성동마을기록관'을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이번 개관식 행사는 최근 긴장되고 있는 남북관계로 인해 불안감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축하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된다. 아울러 이번 개관행사와 병행, 마을주민 대부분이 고령이고 평소 복잡한 출입제한 등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의료진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한방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관식이 끝난 후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마을 경관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해 주민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숙원사업인 노후주택 정비공사 현장에 찾아가 주민과 공사 관계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11.3 X 11.1 cm

파주 DMZ 일대 걸으며 생태계 보전 방안 모색

국내의 생태계 전문가들 참석
경기도 군사분계선 서부 탐방

獨 자연보전청 우베 리켄 박사
"후손들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

"DMZ에 직접 와 보니 이곳이 품은 생태계의 가치가 더욱 소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도는 2일 오전 7시부터 파주 DMZ 일원에서 독일 연방자연보전청의 우베 리켄 박사 등 국내외 생태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서부 DMZ 현장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탐방은 1일 개최한 '경기도 DMZ 워크숍'과 연계해 국내외의 생태계 전문가들에게 경기도의 DMZ 생태계 활용 사례를 직접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선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제해관에서 출발,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이지 경기도 기념물 제218호로 지정된 덕진산성을 찾아 DMZ 일원의 역사와 생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독일 연방자연보전청(BfN)의 우베 리켄 박사(앞줄 왼쪽 세번째)가 지난 1일 안산 한양대학교 예리키캠퍼스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경기도 DMZ 국제워크숍'에 참석, 주재발표를 통해 "생태계의 보고인 DMZ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생태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경기도)

또, 1978년 발견된 남침용 군사도요인 제3방굴과 북한외 개성시, 송악산을 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를 방문해 휴전선 이북 지역과 한반도의 분단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독수리 활동지인 장단변도 일대와 민통선 내 마을인 통일촌, 최근 중부한 생물다양성과 습지로 인해 학계로부터 조명을 받고 있는 한강하구 등을 둘러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현장탐방에 참가한 우베 리켄 박사는 "DMZ 일원은 한국의 역사와 생태계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독특한 곳"이라며 "현재 독일은 과거 동-서독 경계지역을 그뤼네스 밴트(Grünes Band)로 지정해 자연 그대로를 보전하고 있다. 통일된 한국 역시 이를 참고한다면 소중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갑재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은 "이

번 서부 DMZ 현장탐방을 통해 DMZ의 가치를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 물론, DMZ의 자산을 더욱 영구적이고 발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DMZ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생태계서비스 아시아지역 총회(Asian ESP Conference)'와 연계해 열린 경기도 DMZ 국제 워크숍은 DMZ 일원 생태계 보전 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지역 절경지 생태-관광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경기도와 독일 연방자연보전청이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와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주관했다.

워크숍에는 독일 연방자연보전청(BfN),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ESP), 유엔 시역과 방지협약(UNCED), 유네스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PP), 중국 과학원, 인도 환경부, 베트남 환경부, 한스자이벨 재단, 경기연구원, 파주시 연천군, 국립생태원, 자연환경국민신탁 등 국내외의 주요 기관에서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종복 기자 bok7000@

22.3 X 14.8 cm

아시아 최대 글로벌 공유 자산 꾸꾸는 DMZ

“DMZ, LDN 기금 투자대상 가능성 있다”

〈토지환경해피지킴〉

인터뷰

시모네 콰트리니 유엔사막화방지협약 기금관리국장

“DMZ(비무장지대)가 내년 첫 시행을 앞둔 ‘토지환경해피지킴’(LDN) 기금 투자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시모네 콰트리니’(Simone Quattrini)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기금관리국장은 지난 1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DMZ가 조성 중인 기금이 투자될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시모네 콰트리니 국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리는 ‘DMZ 국제 워크숍’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 기구로 UN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UN 3대 협약 중 하나다.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 회의에서 ‘의제21’을 선언한 이후 현재 한국을 비롯한 105개국이 협약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전 세계 사막화 방지를 위한 연간 20억달러 규모의 ‘토지환경해피지킴’(LDN) 기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모네 콰트리니 국장은 “‘토지환경해피지킴’(LDN) 기금이 내년이면 시행·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월드뱅크, 아시아 개발은행 등과도 협력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DMZ에 LDN 기금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다만 투자 리스크인 남·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방지할지에 대한 ‘헤지’(Hedge) 처리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투자 리스크 남·북 관계 관리·Hedge 처리 고민해야” ‘생태계서비스 브랜드화’ 타국에 전파 맨 투자도 가능

다음은 시모네 콰트리니 국장과의 일문일답.

- UNCCD는 어떤 기구인가.

전 세계 대륙의 약 40%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막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맺어진 국제 협약이다.

사막화를 겪는 국가에 재정적·기술적 측면의 국제적 지원에 나서며, 지원 대상국이 국가실천계획 등 정책화를 수행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도 수행한다.

현재 아시아 57개국, 아프리카 53개국, 라틴 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33개국, 동중양유류 18개국, 북지중해 12개 등 모두 105개국이 사막화방지협약에 가입하고 협약국으로 등록돼 있다. 사무국은 독일 본에 위치한다.

- UNCCD와 한국 간 협력 현황은.

한국은 105개의 회원국 중 가장 먼저 협약에 가입했던 회원국이다. 한국은 심각한 피해 수준에 비해 낮은 관심을 받아온 동아시아지역의 사막화 방지, 건조지 복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11년 총회에서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사막화 방지를 위한 과학기반 구축 유도를 비롯해 사막화, 토지환경화, 가뭄 피해 등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하는 ‘창원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채택된 바 있다.

- UNCCD가 경기도와 함께 DMZ 보존을 위해 벌일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어떤가.

협력 사업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위주로 관심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다만 DMZ가 가진 생태계서비스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시도는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것이 아시아 다른 국가 등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라면 가능성이 있다.

- ‘토지환경해피지킴’(LDN) 기금은 무엇인가.



UNCCD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로 보조금을 지원했던 기존 지원 방식과 차별화된다.

가용 가능한 자원(자금)을 끌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 환경화원 토지를 복원하거나 사막화 방지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단계로 대부분 형태인지, 예코티(Equity-자기자본비율) 방식인지 등 구체적 투자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 또 국가 단위로 기금을 할당할 것인지, 지역(대륙) 단위로

투자 기금을 나눌 것인지 등도 심재해야 할 부분으로 남았다.

기금 규모는 대략 20억달러로 예측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국 전체 면적의 두 배가량인 연간 1천200km의 토지가 사막화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복원하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평균 20억달러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까닭이다.

/홍성민기자 hsm@/사진=이진우기자 pooff1@

서부 DMZ 현장탐방

생태계 전문 30명 참가

경기도는 2일 오전 7시부터 파주 DMZ 일원에서 독일 연방자연보전청의 우베리켄 박사 등 국내외 생태계 전문가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서부 DMZ 현장탐방을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출발,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이자 경기도 기념물 제218호로 지정된 덕진산성을 찾아 DMZ 일대의 역사와 생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978년 발견된 남침용 군사도로인 제3땅굴과 북한의 개성시와 송악산을 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를 돌

아보고 휴전선 이북 지역과 한반도의 분단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독수리 월동지인 장단반도 일대의 민통선 내 마을인 통일촌, 최근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습지로 인해 학계로부터 조명을 받고 있는 한강하구 등을 둘러봤다.

이날 현장탐방에 참가한 우베리켄 박사는 “DMZ일원은 한국의 역사와 생태계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독특하다”며 “현재 독일은 과거 동·서독 경계지역을 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로 지정해 자연 그대로를 보전하고 있다”며 “이를 잘 보존하면 통일된 한국은 소중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성훈 기자 sikanat5@incheonilbo.com

11.6 X 6.6 cm

도라산역서 '통일열차 체험'

경기관광공사, POP&U 프로 운영 민통선 콘텐츠 관광 활성화 기대

경기관광공사와 통일부, 한국철도공사가 손을 잡고 한반도의 북쪽을 넘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통일열차 체험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POP&U(Platform Of Peace & Unific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파주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출입경 시설 및 도라산역 통일 플랫폼 등을 견학하는 내용이다.

이용 대상은 공사가 운영하는 캠프 그리브스 DMZ 체험관을 이용하는 단체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 가는 두 개의 관문(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도로 출입경 시설, 도라산역 철도 출입경 시설) 견학이 가능하다.

개성공단 '출·입경 시설'에서는 가상

의 북한 방문증명서 스탬프 날인을 받아볼 수 있다.

출경 시설은 북한을 방문할 때 출입심사를 수행하는 시설이며, 입경시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 신분을 확인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게다가 도라산역에서는 통일 이후 유라시아 횡단열차 운행을 위해 설치된 국제선 플랫폼에서 베를린 등으로 갈 수 있는 '국제선 철도 열차표'도 받아볼 수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이날 통일부(남북출입사무소),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와 '평화·통일 교육 및 민통선 지역 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관계자는 "POP&U 프로그램은 평화 통일 후 한반도의 북쪽을 넘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관문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평화 통일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민통선 내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